

OpenDoors

2018. 4. Vol. 192

박해와 선교현장

말레이시아 *Malaysia*

Yellow ID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TALK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사탄의 전략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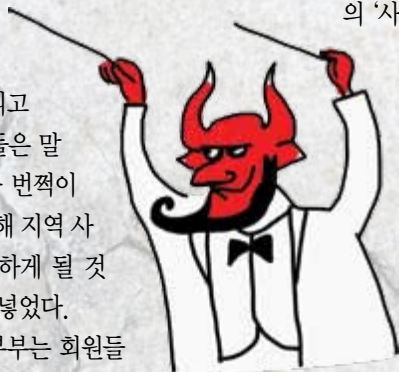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일반적으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외부의 공격은 보통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강화시켜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해 준다. 사단은 신자들의 모임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 공작을 펴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했다. 그는 종종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혼란과 불신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거나 자기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여 파견한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원한, 분노, 시기 등과 같은 나쁜 태도를 불러일으켜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 눈을 주님에게서 돌리게 만든다.

나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 기도 모임과 성경공부 모임이 엄청나게 성장할 단계에서 무너진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들은 이야기 중 상당히 전형적인 경우를 보자. 수년 동안 계속 되었던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에 한 부부가 새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영적 자질을 기존 회원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 모임에서 필요로 했던 지도력과 방향성을 제공해 줄 특별한 통찰력과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인격도 대단히 훌륭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기적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예언적인 꿈,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과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 등과 같은 영적인 신용카드를 번쩍이며, 그 모임이 이제 곧 주님을 위해 지역 사회에서 능력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회원들에게 불어 넣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부부는 회원들

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항상 같은 것으로, 그 내용은(처음에는 매우 부드럽게 암시했는데) 몇몇 다른 회원들이 그 모임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부의 말에 따르면, 이들 회원들이 자기네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임에 분명히 알려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다면 그 모임이 더 나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투쟁 끝에, 몇몇 회원들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만나서 기도하며 그 부부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부부는 대항하며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며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몇 주 동안 회원들은 그 모임을 지속시키기 위해 고투하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모임을 해체하고 말았다. 불신의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졌으며, 너무 많은 회원이 너무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사 그 모임을 지속할 수 없었다. 추측하건대 그들 부부는 자기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나가서 다른 기도 모임에 합류했을 것이다.

비극적인 것은, 자신들의 말이 사단의 목적에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지 그들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사단의 '자자들' 역시 사단의 희생자들이다.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는 만큼 그들도 미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04 북한 선교 현장 부모님의 시신을 본 이후, 삼 년 동안

06 박해와 선교 현장 말레이시아-Malaysia

14 2018년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16 오픈도어 사역

이라크: 플라스틱 공장에서 희망을 갖다

18 오픈도어 뉴스

이란: 갇히고 학대당하고 배신당하다

20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새단장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300 기도용사 모집

23 2018년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2018년 4월호 | 통권 19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조이, 루나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201-884969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772002-04-066312

성경교재 프로젝트: 우리은행 163-099071-02-101 *예금주 김성태

순교자의 자녀와 미망인 돌봄: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 트라우마치료: 우리은행 1005-001-884989

동북부나이지리아 구호헌금: KEB하나은행 223-13-02233-5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부모님의 시신을 본 이후, 삼 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님은 군대의 교관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지만 내가 여덟 살 때,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 는 이유로 불명예제대를 했고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을 겪으시고 병을 얻었는데, 그로 인해 오랜 세월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제 선생님이 내 동생과 나를 교실 밖으로 불러내며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간부에게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는 부모님 들의 시신이 놓여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입니다. 저는 부모를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큰 충격으로, 그 후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조부모님과 삼촌이 우리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병원으로 데리고 다녔고, 마침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은 공부를 잘해 대학을 다녀서 결국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18살 때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은 열 살 연상이었고 군대 장교였습니다. 1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항상 자상하게 대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직이었던 날 총기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10년동안 감옥에

감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 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제게 돈을 빨리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중국으로부터 TV같은 상품들을 밀수하는 것을 제안했고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내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남겨두고 그냥 떠났고,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갈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일을 울었고 정말로 북한 감옥에 있었던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안전을 위해 조선족이 아닌 한족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고 이들을 낳았습니다. 삼 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나는 성경공부 모임에 다른 여지들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초대를 거부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다른 북한 여인들이 그 모임에 참석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많이 변했다는 말이 내 마음에 다가왔고, 나도 그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저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내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더 일찍 성경공부

모임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나를 가르치는 성경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성경교사는 성경구절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어 무척 놀라왔습니다. 저는 장래 그녀처럼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헌신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우울증세를 가졌던 다혈질의 성격이었는데, 이제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가족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믿은 이래로 놀랍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나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 섬기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내 사랑과 관심으로 내 가족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그것은 저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자기 학교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성경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여행할 정도로 부자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성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죄인 된 존재로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분을 더욱 알고 깊이 알아, 나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레이시아 Malaysia



- 종교: 이슬람교(61.3%), 불교(19.8%), 기독교(9.2%)
- 인구: 약 31,164,000명, 기독교인 2,865,000명(2017년 5월 기준)
- 박해정도: 매우 높음, 박해순위 23위
-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말레이시아의 2018년 WWL(World Watch List, 세계박해순위) 점수는 2017년 기록보다 5점 상승했다. 지난 수년 간 관찰된 바와 같이 기독교 박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은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상승했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수소집단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는 말레이시아 동부와 서부 사이의 갈등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특히 기독교인 노동자 세 명이 갑작스레 실종된 사건(한 명은 백주에 유괴 당함)으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박해지수 중 폭력지수는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말레이시아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적이며 수용적인 이슬람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퇴색되었고 2018년 WWL 보고서 역시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 예로 정부는 켈란탄 주(Kelantan)에서 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식 형벌 '후두드(hudud)' 도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샤리아 법이 시민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이혼 양육권 소송 재판에서 이런 형상이 두드러진다. 민사법원은 비무슬림 일지라도 아이의 어머니 편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자 일부 아버지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샤리아 법정에 가서 양육권을 얻어내고는 한다. 경찰은 문제의 소지가 보다 적은 후자(샤리아 법원)의 결정에 무게를 실어주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분쟁해결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치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7년 8월, 정부는 새로 통과된 혼인이혼법에서 배우자 한 쪽에 의한 자녀 개종 결정을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삭제된 88항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 자녀의 개종 여부는 양 부모의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5년 1월, 고등법원은 한 카톨릭 매체를 겨냥해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의 정식 단어인 '알라(Allah)'를 사용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는 사바 주(Sabah) 등

지역 법원에서 답습되었다. 2015년 12월, 말레이시아 마라기술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Mara)의 말라카(Malacca) 캠퍼스에서 무슬림만 참석한 가운데 '반기독교화' 세미나가 열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슬람 급진주의와 보수주의 세력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6년 6월에는 이슬람국가(IS)의 습격으로 인해 여덟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WWL 2018 집계 기간에는 기독교 목사 두 명이 유괴당했으며 지금까지 실종된 상태다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말레이시아의 기독교 박해에 있어서 편집증적 독재주의는 부수적인 요인이지만 국가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이다. 현 집권 연합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1957년 독립 이래 국가를 다스려 왔다. 무슬림 정당과 보다 소수인 중국, 인도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UMNO는 지난 수 년간 반대당이 없이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2008년과 2013년 치러진 선거는 마치 대지진과 같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상 최초로 강력한 반대당이 등장했으며 일부 연방주에서 선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말레이 정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반응했다. 정부는 여러 민족을 공평하게 대하는 정책 대신 말레이 민족에 대한 특별 대우를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다. UMNO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와 급진주의라는 카드를 거침없이 빼들었다. 사실 이 노선은 정부에게도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나 이는 기독교 소수 집단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UMNO가 급진주의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손을 잡기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PAS는 한때 야당 협정의 일원이었으나 2017년 5월 탈퇴를 선언했다. 늦어도 2018년 여름에 치러질 선거는 편집증적 독재주의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2. 박해배경

말레이시아 사회를 살펴보면 인구 다수를 구성하는 말레이 민족과 중국, 인도 등 소수민족, 그리고 동부에 거주하는 현지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에게 훨씬 더 우호적이며 소수민족은 차별의 대상이 된다. 말레이시아 소수 집단들은 일상적으로 인종주의와 차별을 겪는다. 지난 수년 간 정부는 빈번하게 인종주의와 종교 갈등을 이용해 인구 60%를 차지하는 말레이 민족의 지지를 얻어내고 권력 기반을 다지려 했다. 그들은 반대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말레이 집권 세력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을 없애려는 시도로 몰아갔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현지 부족이거나 중국 또는 인도 소수민족 출신이기에 이와 같은 긴장감에 유독 취약하다. 레이먼드 고(Raymond Koh) 목사는 2017년 2월 13일 백주에 유괴를 당했다. 그가 페탈링자야(Petaling Jaya)를 지날 때 세 대의 검은 SUV가 그의 차를 멈춰 세웠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납치해 갔다. 이 사건

은 기독교와 소수집단 전체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16년 11월에도 이와 비슷하게 조슈아 힐미(Joshua Hilmy)와 루트 힐미(Ruth Hilmy) 목사 부부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 목사 납치 사건의 수사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도리어 그의 선교 활동 이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독립 60주년을 맞은 2017년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유괴당하는 대상은 기독교인 뿐 아니다. 한 시아파 이슬람 사회활동가도 납치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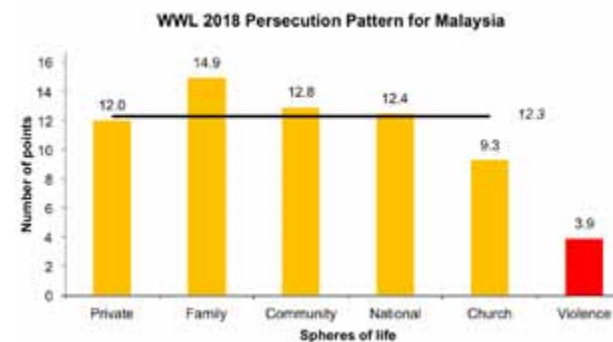
비록 부정부패의 추문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UMNO는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것으로 보인다. 모 신문은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 라작(Najib Tun Razak)을 향해 '침몰하지 않을 이' 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2018년 중반쯤 치러지게 될 대선에서는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 말레이시아 총리는 'IMDB'라는 국영투자기업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위기에 처해 있다. 스위스와 미국의 국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사태로 인해 UMNO 구성원들은 더욱 단결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Bumiputera, '토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을 추진해 왔다. 이는 말레이 민족의 국민과 현지 소수민족들이 거주지, 학교 및 기타 정부 제도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 말레이시아 동부에 거주하는 현지인들(기독교인 포함) 역시 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느 기독교인은 "우리는 '부미(후)'고 그들은 '푸트라(왕자의 아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7년 여름, 말레이시아 연방토지개발국의 부정부패 사실을 둘러싸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는 정부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버거워질 경우 정부는 가차없이 소수민족과 기독교인 등 종교 소수집단을 몰아 세우게 될 것이다. 시아파 무슬림 집단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의 활동가 한 명이 납치된 사건도 있었다.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중국 전통종교 신자들 역시 정부의 친말레이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3.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 전반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삶은 모든 영역에 걸쳐 증가했다. 평균 박해지수는 2017년 11.7점에서 2018년 12.3점으로 상승하며 매우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 박해가 심각한 삶의 영역은 가족과 공동체, 국가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나타나는 박해의 유형은 전형적인 독재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가족, 공동체,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박해의 유형은 이슬람 또는 타 종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외에도 말레이시아 국가가 추진 중인 이슬람화 정책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탄압은 말레이 족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슬람 보수주의'를 더욱 의존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샤리아 법(Sharia laws) 도입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종교 개종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점수는 납치사건 발생으로 인해 2017년 2.0점에서 2018년 3.9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동안 좀처럼 폭력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납치사건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큰 충격을 줬다.



개인영역

북서부 사라왁(Sarawak)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말레이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서 타종교로 개종할 수 없다.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MIP)은 배교 시 사형을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 개종자들은 공개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시, 정부 관리들에게 발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역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종자들은 정부와 지역사회,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을 피해 교회 활동을 각 가정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 내 유일한 기독교인일 경우 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성경과 기독교 책자들은 꼭꼭 숨겨야 하며, 개종을 용납하지 못하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이라면 성경이나 기독교 책자들을 읽을 때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변절자로 취급 받게 된다. 개종자들은 신앙이 밝혀지게 되면 처벌 받거나 이슬람으로 회귀하도록 이슬람 정신강화 캠프에 보내지기도 한다. 또한 개종자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영역

헌법에 따르면, 나면서부터 무슬림이거나, 개종하여 무슬림이 된 부모에게서 난 자녀를 또한 무슬림으로 자동 등록된다. 이러한 사례는 사바(Sabah)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기독교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의 말레이 원주민들 이름에는 'bin' 또는 'binti'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로써 정부관리들은 이들이 무슬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이케드(MyKads)라고 불리는 신분증 안에 종교를 '이슬람'으로 기재하기도 한다. 이것은 말레이 원주민 개종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할애될 뿐 아니라, 고된 작업이며, 최종적으로 극소수만이 정부당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은 신분증을 갖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국가등록처에서 발급된 이 신분증 안에는 하나의 종교만이 기재된다. 일단 말레이시아 시민이라면 무조건 무슬림으로 등록되는데,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법정 소송이 진행되며,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말레이시아 국가등록처에서는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만일 무슬림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정부 관리는 연방이슬람종교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만일 장례식이 이슬람식에 따라 거행되지 않으면, 연방이슬람종교부는 비-무슬림 가족들로부터 고인의 시체를 강제로 소유할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로써 고인은 이슬람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된다. 무슬림배경 신자들(MBBs)은 또한 이혼을 강요당하며, 이혼 후에는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세례를 주거나, 기독교식 결혼 또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재-교육을 위해 이슬람 정신강화 캠프에 보내지기도 한다. 개종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되며, 기독교 어린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 받는다. 사바(Sabah)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토착 기독교인들은 핏에 빠져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건네줬고, 알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서약서였다. 당사자들이 신분증을 돌려받은 후, 자신들의 종교가 이슬람으로 뒤바뀐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원상복구해줄 것을 말레이시아 국가등록처에 요청했지만, 샤리

아 법정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종교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정의 승인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영역

기독교인들은 정부당국뿐 아니라 지역 무슬림 공동체와 페르카사(Perkasa), 이스마(ISMA)와 같은 말레이 이슬람 극우 민족주의 단체들에 의해 감시 당하고 있다. 이슬람 규례를 따르고 있는 정부에 의해 기독교 박해는 증가하고 있다. 사바(Sabah) 지역과 사라왁(Sarawak) 주 시골마을의 경우, 토착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말레이 공동체만이 수도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말레이인들 위한 차별정책 때문에 고등 교육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 다른 차별정책은 말레이족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민족들은 제값을 내고 매입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 중국-인도 기독교인들에게만 부과됐던 지즈야(Jizya)라는 간접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무슬림들은 특정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유인책, 무슬림들은 자카트(zakat)로 불리는 이슬람 종교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또한 다른 민족이 감세 받을 수 없는 소득세까지 감면 받고 있다. 2017년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는 연설을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통합말레이기구(UMNO)가 집권에 있는 한, 말레이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례로, 새롭게 건설될 도시철도(MRT)의 모든 역 주변의 소매점 50%를 말레이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기독교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말레이 원주민을 반드시 동업자로 뒀야만 정부로부터 계약을 체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몇몇 사업주들은 서류상으로만 '말레이 원주

민 동업자'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종자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 받는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차별에 시달리게 되고, 고위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도 없다.

국가영역

헌법에서는 말레이족을 무슬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레이인들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없을뿐더러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조차 없다. 헌법은 또한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전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어디서나 이슬람을 선전할 수 있다. 더욱이 샤리아 법(Sharia law)은 민법과도 연계돼 있다. 켈란타(Kelanta) 주에서는 이슬람식 체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후두드 법안(hudud-bill)'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웹사이트는 말레이 이슬람 극우 민족주의 단체들에 의해 운영 중이며,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번번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말레이시아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져있다. 한가지 실례로, 마라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Mara) 말라카(Malacca) 캠퍼스에서 말레이시아를 "위협하는 기독교화"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사회적 불안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고발된다. 말레이시아의 최연소 여성 정치인 한나 여(Hannah Yeoh)는 자서전을 통해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죄목을 쓰고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의 지나친 선동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선동죄 조항에는 말레이시아 정부나 9명의 술탄(Sultan-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국으로 9개 주의 술탄

탄이 교대로 국왕이 되어 5년 동안 통치하지만 실권은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와 총리가 쥐고 있다) 왕들을 모욕하는 일말의 행동, 연설, 출판이 금지돼 있고, 다른 인종과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지만, 실상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인종 및 종교 간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들에게는 실상 선동죄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레이족은 다수 민족이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선동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 주 토착민들은 선동죄에 적용 받고 있다.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역시 대부분 선동죄로 기소될 수 있다. 토착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서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돼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동말레이시아를 비롯해 기독교 인구는 앞서 언급된 문제들로 감소할 것이다.

교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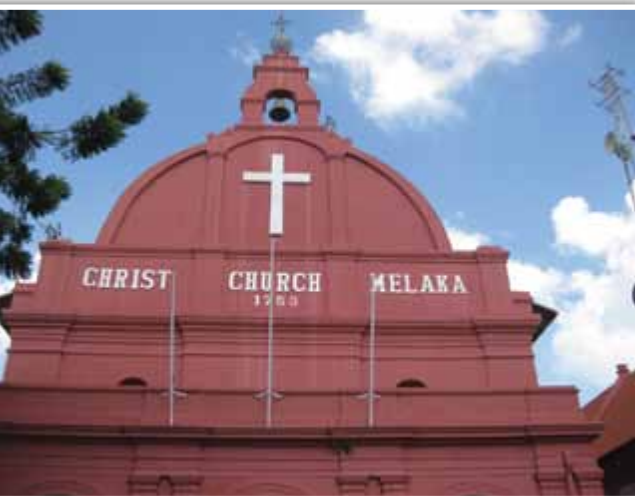
대부분의 비-정통 기독교 공동체들은 교회로 등록되지 않고, 상점이나 공장 부지를 매입해 단체나 지역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감시대상이 되는 반면, 교회로 등록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모임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말레이 개종자들을 드러내선 안 된다. 공용어인 바하사 말레이시아어로 인쇄된 자료는 수입 규제 대상이며,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된 성경과 말레이어 기독교 서적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표준 운용 절차(SOP)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어 성경을 포함해 수입된 모든 기독교 출판물은 내무부 소속 쿠란부

박해와 선교 현장

(Quranic Division)에 의해 통제된다. 교회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정책 시행을 밀고 나갔다. 더욱이,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을 지칭하는 “알라(Allah)”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알라(Allah)”라는 단어는 수 백 년 동안 성경과 다른 기독교 출판물에 쓰여왔고, 공용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성경에도 문제없이 사용돼 왔다. 2017년 질 아일랜드(Jill Ireland)는 “알라(Allah)”라는 단어가 삭제된 새-성경 번역본을 발행해 줄 것을 국가 어학기관에 요청했다.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성경 번역을 이슬람 학자들에 맡겼다. 이들의 관점이 새-성경 안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

폭력

2016년 11월 30일 조슈아 힐미(Joshua Hilmy)목사와 그의 아내 루트(Ruth) 사모가 서남부 셀랑고르(Selangor) 자신들의 집에서 갑자기 행방불명 됐다. 2017년 2월 13일 레이몬드 고(Raymond Koh)목사는 프탈링 자야(Petaling Jaya)에서 정체를 모를 남성들에게 납치됐다. 고 목사는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납치당했으며, 이번 사건은 백주대낮에 일어난 계획적인 사건으로써 주변 CCTV 카메라에서도 포착되었다. 그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정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말레이시아(Malaysia)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

종교적 상황

말레이시아 헌법은 말레이 사람을 이슬람교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인은 무슬림으로 여겨진다. 말레이시아가 비종교 국가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슬람은 일상생활의 법제도와 정치제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정치제도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비 이슬람 소수 종족이 점점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구의 반 이상은 말레이 종족으로 약 4분의 1이 중국인, 11퍼센트가 토착민, 7퍼센트가 인도 출신이다. 1969년 이 나라는 심각한 민족 갈등을 겪었고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하다. 말레이 종족 대부분은 무슬림으로 종종 교육을 덜 받았으며 동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토착민들과 함께 정부당국으로부터 수출입 할당제도, 대출, 세금 특혜를 받으며 강력한 차별 철폐 조치를 즐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중국인 또는 인도인 출신의 시민들을 배제하고 있다.

소수 종교인들이 직면한 논쟁거리로 종교가 서로 다른 커플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주장을 들 수 있다.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양육권을 잃게 될 파트너(거의 항상 남편이 해당)는 재빨리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무슬림 신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샤리아 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론적으로는 민사법원이 샤리아 법정보다 우위에 있지만, 경찰이 샤리아 결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법원이 아닌 샤리아 법원(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에 의해 자주 결정된다. 정부당국은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2015년 정부당국이 국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슬람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샤리아 지표 도입과 함께 사회가 점점 이슬람화로 진행 중이다. 정부에 의하면, 2015년 이슬람 율법 준수율은 75.4 퍼센트였다. 만약 100퍼센트에 도달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회가 될지 궁금해할 것이다. 게다가 비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한들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동안 구내식당에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에게 똑같이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정치적 상황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대중 지지도는 2016년 31퍼센트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현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보충할 법을 시행했는데 선동법(Sedition Law)이 한 예다. 2016년 한해만 220개에 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대부분이 정부 또는 수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 해 8월,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정부당국은 체포와 압수 수색 및 마음대로 통행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법은 수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부의 모토는 ‘하나의 말레이시아(One Malaysia)’지만, 대다수의 관찰자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말레이시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말레이사람 또는 토착민인 “부미푸트라(Bumiputera)”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비말레이 종족에 대한 오래된 차별 관행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부미푸트라에 대한 호의가 계속되는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과 인도인들은 관공서와 국가관료, 공기업과 군대에서 불리한 점을 분명하게 겪고 있다. 정치 프로그램 통합 촉진 기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가 세계 유례없는 입헌 군주제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기반을 두지 않고 9명의 지역 왕 중에서 5년마다 순환해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통치자들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선거 기구의 결정을 따르고 있으나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상황

경제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며 현대화하고 있는 국가다. 경제성장이 2016년에는 둔화되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오일을 포함해서 광대한 자원들이 사회기반 시설과 다른 프로젝트의 발전과 개발에 주로 투자되었다. 부패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가 부패를 상대로 좀더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은행의 평가대로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중산층은 증가하고 빈곤층이 감소하면서 현재 동남아 국가 중 빈곤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경제적 변연에 대한 승산은 밝은 편이다.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070-7522-3171 | opendoorkorea@gmail.com
www.opendoors.or.kr | https://www.facebook.com/opendoorsko

2018년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국가영역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폭력

폭력에 대한 총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폭력
최고점수 = 16.7



아래의 나라들은
41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지만,
상위 50위 국가에는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기독교 박해는 존재한다.



박해 최고점수
= 83.3



폭력 최고점수
= 16.7



순위

최고점수
= 100

박해순위

순위	국가	점수
1	북한	94
2	아프가니스탄	93
3	소말리아	91
4	수단	87
5	파키스탄	86
6	에리트레아	86
7	리비아	86
8	이라크	86
9	예멘 아랍 공화국	85
10	이란	85
11	인도	81
12	사우디 아라비아	79
13	몰디브	78
14	나이지리아	77
15	시리아	76
16	우즈베키스탄	73
17	이집트	70
18	베트남	69
19	투르크 메니스탄	68
20	라오스	67
21	요르단	66
22	타지키스탄	65
23	말레이시아	65
24	미얀마	65
25	네팔	64
26	브루나이	64
27	카타르	63
28	카자흐스탄	63
29	에티오피아	62
30	튀니지	62
31	타키	62
32	케냐	62
33	부탄	62
34	쿠웨이트	61
35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61
36	팔레스타인 영토	60
37	말리	59
38	인도네시아 공화국	59
39	멕시코	59
40	아랍 에미리트	58
41	방글라데시	58
42	알제리	58
43	중국	57
44	스리랑카	57
45	아제르바이잔	57
46	오만	57
47	모리타니	57
48	바레인	57
49	콜롬비아	56
50	지부티	56

높음 매우높음 극심함 박해정도

이라크(Iraq) 플라스틱 공장에서 희망을 갖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라크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난 8월에 바쉬카(Bashika)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르빌(Erbil)에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 들어서, 14명의 사람들이 일 자리를 갖게 되었다.

크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철문 사이로 큰 기계를 만지며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하피드(Hafid)는 14명의 노동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에르빌에 사는 바쉬카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고,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공장 안의 큰 소리를 뒤

로 하며 젊은 하피드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며 큰소리로 이야기 해주었다. 하피드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못다 마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 파란색 기계에서 나온 제조된 플라스틱 병을 큰 플라스틱 가방에 넣는 일을 계속 하였다. 일곱 개의 기계는 400 제곱 미터의 큰 공간을 차지하며, 큰 소음을 만들어내서 사실 공장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서 좋다고 말하며 그의 얼굴에는 큰 웃음을 띄었다. 바쉬카 플라스틱 공장은 지난 2017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현지 시리아 정교회 신부 폴(Paul)이 제안하였

고, 오픈도어와 협력해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공장운영은 사실 큰 프로젝트이다. 공장은 교회 소유로 되어있고, 일자리 창출 이외에 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는 교회 수입원으로 제공된다. 교회의 수입으로 들어온 재정으로 교회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람들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공장 운영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니하드(Nihad)이며, 그는 또한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니하드 또한 바쉬카에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떠도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오픈도어가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었고,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 공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는 두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했다. 6명으로 구성된 한 팀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다른 팀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근무 조 외에 공장 설비사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들은 고정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또 다른 7명의 사람들이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음도 알려주었다. 니하드는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17개의 다른 공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공장이 처음 운영될 때에는 2가지 종류의 캔만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적 상황은 2017년 9월에 독립군의 쿠르드 지역 탈환으로 에르빌의 국제선 항공이 봉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장이 원자재를 구입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물자 수급이 어려워져, 현재 모든 원자재는 바그다드를 통해서 들어오며 시간과 서류작업이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헤니(Hani)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그는 모술(Mosul)에서 온 기독교인이다. 주로 그는 모술에서 묘지 비석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19살로 최근에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 둘째 아들은 14살로 에르빌의 안카와(Ankawa)에 살고 있다. 실향민으로 이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모술로 돌아가고 싶지만, 사실 그러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의 얼굴에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묻어나 있었다. 헤니는 처음에 이곳에 와서 처음 1년 동안 일을 찾은 것이 참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공장에 오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현재 그가 하는 일은 플라스틱 캔을 포장해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과 그 외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였다. 헤니는 자신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는데, 그는 매일 기도하며 특히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된다고 한다. 그는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꺼이 돕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에 큰 감사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도움의 손길에 큰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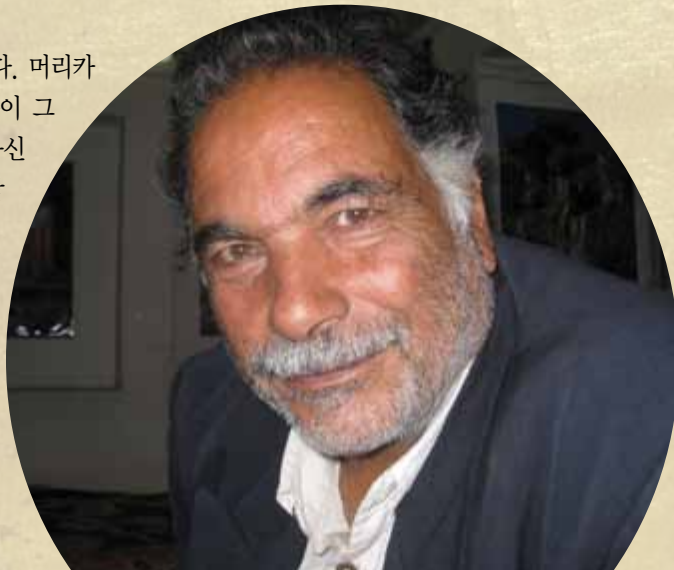
이란 (Iran)

갈히고 학대당하고 배신당하다

-철창에 갇힌 이란 크리스천의 이야기

모라드(Morad)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의 한 감옥에 6개월간 투옥되었다. 투옥기간 동안 그는 신체적으로 학대당했으며 독방에 갇혔고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조심스레 모라드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머리카락은 희게 새어가고 있었지만 늘 그랬듯이 그 푸른 눈은 친근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자신에 대해 자랑할 줄 모르는 이 수수한 사람의 삶은 모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투옥생활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교회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연계되어있는 작은 교회들의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심방을 가곤 했습니다. 제가 체포되던 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라드는 한 공원에서 예수님에 관해 한 젊은 새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택시 한 대와 흰색 벤이 길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저의 눈을 가리더니 저를 벤에 태워 체포했습니다.” 그 새신자는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몇 초간 생각하더니 그는 대답했다. “저는 그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곳을 떠



나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아마 나중에 저처럼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감옥으로 가던 길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어디서 제가 왔으며 왜 이곳에 와서 돌아가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전화조차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홀로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지 첫 몇 주 간 모라드는 독방에서



지냈다. “있는 거라곤 3개의 벽과 1개의 문뿐인 독방에 저는 혼자 갇혀있었습니다. 가끔씩 교도관이 차를 가져왔지만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고, 이러한 것은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들 중 작은 일부였습니다.” 매일 조사관들은 모라드를 비웃으며 학대했다. 모라드의 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모라드를 발로 걷어찼다. 심문을 받으면서 괴로웠던 것은 조사관 때문만이 아니었다. 모라드는 환난가운데 침묵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워했다. “저는 취조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일이 있기 까지 주님이 막아주시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감방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모라드는 독방에서 여러 명이 수감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같은 교회의 지체를 만나면서 조금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였다. “교회 멤버가 매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를 주님계로 인도했기 때

문에 그와 그의 부인이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14살짜리 아들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삶을 망쳐놓았다고 원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모라드의 눈에서 밀려오는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지체에게 당신이 선택한 것은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첫 공판에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역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이 성도에게 나타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음 공판 때 그는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그 자신의 진정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라드는 미소를 띠면서 이어갔다. “그 후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감옥의 정원에서 함께 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감옥에서 나온 후 여러 방면으로 그를 수소문 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한국오픈도어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였습니다.
접속해 둘러 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opendoors.or.kr/>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한국오픈도어’** 로 검색

한국오픈도어에서는 2018년도부터 국제오픈도어의 후원권역 규격에 맞춰 기존 후원권역을 통합/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 후원권역이 새롭게 통합/변경 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후원하고 계시는 통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후원통장이 해지/변경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 (02-596-317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201-884969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772002-04-06631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성경교재 프로젝트: 우리은행 163-099071-02-101 *예금주 김성태
순교자의 자녀와 미망인 돌봄: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 트라우마치료: 우리은행 1005-001-884989
동북부나이지리아 구호헌금: KEB하나은행 223-13-02233-5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 박해 퍼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가로열쇠

- 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선포한 사 람(삼상12:23)
- ③ 모세와 십보라의 맏아들이며, 어머니 십보라에게 할례를 받았다.(출 2:22)
- ④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다.(수 19:21)
- ⑥ 요시아 왕의 맏아들이었으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 르지는 못하였다.(대상 3:15)
- ⑧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이다.(왕하 18:1~2)
- ⑩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로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요 1:45)
- ⑪ 예레미야의 친구 바룩의 할아버지(렘 32:12)
- ⑪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장소이다. 고향으로 귀환하던 아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는 의미에서 나온 지명이다.(창 32:30)

세로열쇠

- ① 엘리아가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곳(눅 4:26)
- ② 솔로몬 당시의 성읍 중 하나로 왕실을 위한 식량 을 마련했다.(왕상 4:9)
- ③ 가나안 동쪽에 있는 가나안인의 성읍이며, 여호 수아가 이곳을 정복해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했 다.(수 15:23)
- ⑤ 하만의 아내로,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의논 상대였다.(에 5:10)
- ⑦ 하모곡 골짜기에 있던 성읍의 상징적인 이름이 다.(겔 39:16)
- ⑨ 대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로 다윗 왕 시대 열두 군대사령관 중의 한 명이다.(대상 27:5)
- ⑫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이자, 므셀레야의 넷째 아들(대상 26:2)

■ 지난호 정답 ■

	여	호	와	이	레		
	호				아	불	로
예	수			전			마
	아	골		도			백
		로	마	서			부
아	비	새			회	당	장
가		서	신	서		립	
서			발			보	

■ 지난달 당첨자 ■

박용근, 오현숙, 신유정 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8년 4월 10일까지)

300기도 용사 모집



오픈도어가 복음을 들고 찾아 가는 곳은 전 세계의 핍박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란 본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긴급 기도 제목들이 올라 옵니다.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긴급히 기도 부탁을 하는 간절한 내용들이 배달됩니다. 이에 우리 한국 오픈도어에서도 SNS를 통하여 본부에서 올라 오는 긴급 기도 제목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기도 용사들은 수시로 올라 오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눈뜨고 간절한 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암흑같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때도 전 세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정이 알려져 기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진 빛을 갠아야 할 때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정보를 오픈도어 메일(odsk@opendoor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010-7573-3171/엘리사 간사)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신 정보는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3. 이메일주소:
4. 카카오톡 or 페이스북 주소:
5. 주거지역: ex) 서울, 경기, 경남, 전남 등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주의 뜻이 실현됨을 믿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2018년 오픈도어 ·년주 캠페인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 개발

아프리카 지역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용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61-099071-02-101

아시아 지역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돌봄 사역

아시아 지역에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돌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한 분들의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3,500만원 ■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중동 지역 가족 트라우마 치유 사역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으로 상처 입은 기독교인 가족들을 치유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겪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1,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005-001-88498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co.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